

문화로 넓힌 양성평등의 시선, 윤가은 감독 등 '제19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 문화예술체육 등의 현장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한 7개 부문 수상자 19명(단체) 선정
- 9.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상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사)여성문화네트워크(대표 박선이), (주)여성신문사(발행인 김효선)가 주최·주관하는 '제19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이 9월 1일(화) 오후 4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2008년부터 시상해 온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콘텐츠,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등 3개 부문의 문체부 장관 표창 3점, '양성평등문화지원상(개인)' 부문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1점과 을주문화상, 일경문화상, 신진문화인상 등 후원상 15점을 포함해 총 7개 부문에서 19점을 수여한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에 윤가은 감독,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에 <눈에 띄는 그녀들> 등 선정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시선에서 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편견을 섬세하게 조명해 온 윤가은 영화감독이 받는다. 특히 윤 감독은 영화 <세계의 주인>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성장과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삶을 주체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을 그렸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으로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많은 여성들의 삶을 진솔하게 조명한 방송 프로그램 <눈에 띄는 그녀들>이 선정됐다. 2022년 시즌 1을 시작으로 현재 시즌 9까지 이어진 <눈에 띄는 그녀들>은 지역 채널에서 시작해 방송 범위를 넓혀가며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도전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양성평등문화지원상 단체 부문 상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에 수여한다. 2018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양성평등한 활동 환경을 만들고 여성 디자이너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여성 디자이너 간 교류·연대와 출판 활동 등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 분야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는 여성 작가의 전시와 제도권 진출 기반을 확대한 김홍희 미술평론가가 선정됐다.

이밖에 ‘일경문화상’은 정주리 영화감독이, ‘을주문화상’은 여성 가구 디자인 창작 단체 ‘도잠’과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팀 ‘블러디퍼니’가 공동으로 수상한다. 공세정 클래식 연주자 등 12명은 ‘신진문화인상’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창작과 실천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이번 수상자들의 활동이 각 분야에서 더 많은 변화와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19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 개요
 2. 제19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자 개요
 3. 제19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포스터
 따로 붙임 주요 수상자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361)
		담당자	사무관	최보미 (044-203-2366)



□ **사업 개요**

- (내용) 문화분야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문화 콘텐츠 등을 선정·시상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2008~)
- (주최/주관/후원) (사)여성문화네트워크/(주)여성신문사/문화체육관광부
- (시상 규모) 문체부 장관상(3점), 문체위 위원장상(1점) 등 총 19점

부문	시상 내역	선정 대상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문체부 장관 표창 및 상금 5백만 원(1점)	윤가은(영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문체부 장관 표창 및 상금 5백만 원(1점)	눈에 띄는그녀들(방송)
양성평등문화지원상(단체)	문체부 장관 표창 및 상금 3백만 원(1점)	페미니스트디자이너 소셜클럽(FDSC)(디자인)
양성평등문화지원상(개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및 상금 3백만 원(1점)	김홍희(미술비평)
을주문화상	을주상 및 상금 3백만 원(2점)	도잠(디자인·공예), 블러디퍼니(공연/희극)
일경문화상	일경상 및 상금 5백만 원(1점)	정주리(영화)
신진문화인상	여성신문사 사장상 및 상금 1백만 원(12점)	공세정(클래식) 등 12명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 9. 1.(화), 16:00~17:30/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서울 서초구 소재)
- 프로그램 일정

시간	세부내용	비고
16:00 ~ 16:10	개회사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16:10 ~ 17:20	시상식	총 7개 부문 19점
17:20 ~ 17:30	폐회	폐회식 및 기념 촬영

붙임 2

제19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자 개요

구분	수상자(단체)	주요공적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장관표창)	윤가은 (영화)	-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시선으로 관계와 사회적 편견을 섬세하게 조명한 영화감독 <세계의 주인>, <우리들>, <콩나물>, <손님> 등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장관표창)	눈에 띄는 그녀들 (방송)	- 선장, 목수, 항해사, 오토바이 정비사 등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의 삶을 조명 '22년 시즌1을 시작으로, '26년 현재 시즌9 방영 중
양성평등 문화지원상 단체부문 (장관표창)	FDSC (디자인)	- 그래픽 디자인 분야의 양성평등한 활동 환경 조성 - 여성 디자이너의 활동 기반 확대에 기여
양성평등 문화지원상 개인부문 (국회 문체위원장상)	김홍희 (미술비평)	서울시립미술관 관장('12~'16), 경기도미술관 관장('06~'10), 광주비엔날레 총감독('06) 등을 역임하여 여성 작가의 전시와 제도권 진출 기반 확대
을주문화상	도잡 (디자인·공예)	목공예 분야에서 여성 작가들의 참여와 창작·활동 영역 확대에 기여
	블러디퍼니 (공연/희극)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팀으로, 일상과 젠더 문제를 소재로 한 공연을 꾸준히 선보임
일경문화상	정주리 (영화)	- 여성 인물을 주체적 시선으로 재현하며 성평등적 영화 서사 확산과 한국 여성 영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도희야>, <다음 소희>, <도라> 모두 칸국제영화제 초청
신진 문화인상 (여성신문사장상)	공세정 (클래식)	연주뿐 아니라 공연 기획·음악감독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클래식의 대중적 접점 확대
	김윤지 (스포츠)	'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여성장애인 체육의 위상 제고
	김현아, 김라경, 박민서, 박주아 (스포츠)	미국 여자프로야구리그(WPBL) 드래프트에서 한국선수 4명 동반 지명
	류상우 (관광)	- 여행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사회적 포용의 가치 실천 「세상에서 가장 느린 마라톤」 프로젝트 진행
	백지윤 (연극)	<젤리피쉬>에서 다운증후군 여성 켈리 역을 맡아 여성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기여
	서주향 (전통공연)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단원이자 국가무형유산 줄타기 이수자로 국내외 공연에서 전통 줄타기를 선보임
	이정현 (영화)	'25년 자전적 경험과 사회적 소재를 바탕으로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은 단편영화 <꽃놀이 간다> 발표하여 여성의 돌봄 경험을 영화적 서사로 확장
	이희주 (문학)	「환상통」, 「성소년」, 「최애의 아이」 등 작품을 통해 팬덤문화와 여성의 욕망·사랑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며, 여성 서사의 외연을 확장
	천선란 (문학)	로봇과 동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와 기술의 변화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존재들의 경험과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

